

제311회국회  
(정기회)

# 국회 본회의 회의 의록

개회식

국회사무처

2012년9월3일(월) 오후 5시 개식

## 제311회국회(정기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개회사
6. 폐식

(17시09분 개식)

○**의사국장 한공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1회국회(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국회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의장 강창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양승태 대법원장, 김황식 국무총리, 양건 감사원장, 국무위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당하신 국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어업인과 영세 상공인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땀 흘리는 공직자와 군 장병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19대 국회 첫 정기회를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뜻 깊은 날입니다. 이번처럼 복잡하고 어려움이 중첩된 상황에서 열린 정기국회도 아마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과반 정당이 없는 가운데 우리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스스로 정한 국회선진화법을 실천하는 첫 정기국회이기도 합니다. 이번 국회는 현 정부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국회가 될 것입니다.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권은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참회는커녕 터무니없는 도발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동북아 전체의 정세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우리는 역대 그 어느 국회보다도 무거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일부 우려대로 식물국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기대와 다짐대로 선진국회가 될 것인지 국회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 우리는 당연히 선진국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19대 국회는 출발부터 식물국회였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첫 정기

국회를 여는 이 엄숙한 자리에서 우리는 지난 총선 당시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정치 쇄신을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특권은 내려놓고 법과 원칙은 국회부터 지키고 국익과 민생을 위한 대화와 타협에 절대로 인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마음을 잘 간직한다면 19대 국회는 대한민국 의정사를 다시 쓸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국회의장에 출마하면서 제가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여당에게는 한 번 묻고, 야당에게는 두 번 묻겠다. 그리고 국민에게는 세 번 묻겠다’ 저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더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야당은 한 발 물러서서 양보하고 타협하는 미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은 두 발 물러서서 야당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정신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원하는 국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9대 국회 4년이 이번 정기국회에 달려 있습니다. 일부 우려는 기우였다는 것이 의정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민생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회의장이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더 걱정인 것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어렵고,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 다수가 본격적인 저성장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민생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이것이 국회의 1차 책무입니다. 그중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문제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사안에도 지체 없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잘못하는 일과 잘못된 인식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분석과 진단 위에서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이 시대의 핵심과제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갖고 해 나간다고 해도 이번 회기 내에, 금년 안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차질 없이 해 내야 합니다.

국민의 지지가 없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고,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기업은 장래가 없습니다.

이것이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근본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가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희망의 불씨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현 정부의 국정을 잘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차기 정부가 효율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충분한 국회의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의 업적을 내세우려 하거나 혹은 실책을 감추려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세우려 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감추려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평가받을 것은 평가받고 지원받을 것은 지원받는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과 내빈 여러분!

우리에 대한 일본의 조직적인 도발과 도전, 삼성과 애플 간의 미국 법원 소송, 그리고 최근 국내외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애국심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애국심이 정파적 이해관계로 인해 가려지거나 퇴색되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애국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세력까지 있습니다. 아무리 국경이 없는 세계를 외쳐도 애국심은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이 힘듭니다. 우리 국회가 고단한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드립니다. 헛된 일로 싸우지 말고 힘과 지혜를 모아 봅시다.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 국회는 국회입니다. 100일 후에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평가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 유형·무형의 도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 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애국심과 결속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회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입니다. 국회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국장 한공식 이상으로 제311회국회(정기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4분 폐식)

○참석 의원(257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고희선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근태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기현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훈	김제남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형태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노회찬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근혜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류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균현
이낙연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용섭	이우현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균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영순	주호영	진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중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주홍			

○내빈 참석자

대법원장	양승태
국무총리	김황식
감사원장	양건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통일부장관	류성우
법무부장관	권재진
국방부장관	김관진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용우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채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환 경 부 장 관	유 영 숙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채 필
여 성 가 족 부 장 관	김 금 래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권 도 엽
특 임 장 관	고 흥 길

○국회 참석자

사 무 총 장	윤 원 중
도 서 관 장	황 창 화
예 산 정 책 처 장	주 영 진
입 법 차 장	김 성 곤
사 무 차 장	구 회 권
의 사 국 장	한 공 식